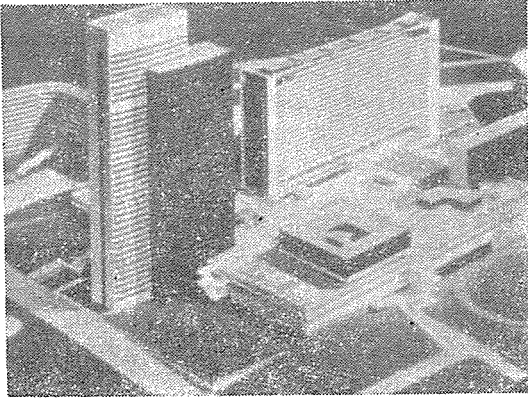


# 현대 건축의 문제점

로드니 에이 라인



이 안에서 필자는 현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느낀 것은 현대 건축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시 계획이란 것을 느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논하기 위해서 필자가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미국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에 있어서의 현대 건축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즉 옛날 빌딩 스타일이나 기술을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현대 건물로 변모하게 한 여건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여건을 연구해 보아야 하며 또 어떠한 관련이 있나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하자면 다분히 철학적인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필자는 문화의 경계선이 손쉽게 교차하지 않는 일반적인 편을 말할 뿐이다. 만일 이 경우가 옳지 않거나 필자의 의견이 총체적으로 한국과 한국의 고유한 문제점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물론 경제학은 가장 현저한 요소가 된다. 경제의 발달과 성장은 도시계획화를 가져오며 그 경제의 발전과 성장이 빠르면 도시계획화의 문제점을 대단히 복잡하게 만든다. 대량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을 찾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빌

딩을 급속히 완성해서 수용시켜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빌딩의 건축이 필요했다. 우리들은 3, 4년 혹은 그 이상은 기념물적인 구조의 건축은 이미 필요가 없어졌으며 서울의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이러한 점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외국에 잠깐 나갔다가 서울에 되돌아 온 사람들로 부터 모든 것이 시의 어디를 가나 많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도시들도 역시 전형적인 예가 된다. 경제성장→도시 건설→이주 그리고 다시 경제성장으로 발달하는 한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기는 나라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으나 근본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본다.

다음 단계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러한 현대화의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평범한 사람이나 상류계급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현대화한 도시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 없다고 보겠다. 그들은 현대건축을 좋아하지 않으며 과거의 고유한 미를 되찾고 있으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계획을 적대시하며 얼마간 중단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이러한 요구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범죄율의 상승, 가정의 파괴, 사회의 표면적인 퇴보를 지적한다.

왜 도시의 성장이 중단될 수 없으며 또 도시에 한번 살아본 사람은 시골로 되돌아가지 않는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도시의 열렬한 비평가들의 대부분이 그들 자신이 도시 거주자들이며 시골에 있는 비평가들은 도시로 옮기고자 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흥미 있는 현상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제공하려고는 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그 해답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후일에는 그 문제가 인식될 것이고 좋은 도시를 건설할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하므로서 올바른 방향을 향한 일보라 느낀다. 건축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현대건축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답하고 싶다.

3  
16400  
2.5 2  
220  
28

우선 현대 빌딩의 형태는 현대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장사무실, 빌딩, 백화점, 영화관, 음식점 등등에서 전통적인 스타일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있는가? 현 시기는 재래식으로는 해답을 줄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창조했으며, 건설기술과 같이 건축에서도 재래식 자재의 기술로는 현대의 빌딩을 건축할 수 없었다.

과학은 우리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류는 그들의 환경을 탐험하고 찾는 한편 거의 상상조차 할수 없는 비율로 소비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조직을 개발시켰다. 이러한 생산조직은 수천만의 소비자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를 생산케 했다.

물질의 변화가 물자생산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 졌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조직에 인간이 적응하도록 강요했던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개의 실마리를 과학에서 찾아보자. 경제의 발전은 과학자들에게 놀랄만한 진보를 가져왔다. 그 과학자들의 대부분인 90%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지식층에서도 이 과학적인 사고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사회는 생산의 전문화를 위해서 여러 그룹이 생겼는데 산업, 사회, 정부 및 교육별로 각 그룹은 생활의 한 분야로 집중하게 되었다. 그 각 그룹의 각 개인은 그룹의 기능에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화되었다. 이러한 기능의 전문적인 예가 생산 노동자들인데 그들은 하루 종일 한가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데 예전때 신행 자동차의 오른쪽 앞 바퀴의 볼트만 나사르 죄는 일 같은 것이다. 그 개인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나 그 개인의 기능 수행이 없는 자동차의 완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 역시 현세계에서 전문화의 효능을 감지할 수 있고 오늘날 대학생들도 여러 개의 전문 과목은 배우지 않는다. 그들 학생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라고 자칭하여 한 분야 이상의 많은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그들이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식의 분야는 너무나 방대하여 교육은 전문화를 강요하며 마치 자동차 제조에서 급속도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질서정연한 전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끝으로 William Barrett의 작품인 "비합리적인 인간"이란 책에서 몇 마디 인용을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대의 인류는 세속적인 어떤 국면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각~~ 인류는 자기 주위에 있는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점점 커지는 힘의 전망을 낙관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류가 꿈꾸는 그 힘이 가끔 너무 지나쳐버려서 인류는 고독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꼈다. 과학은 인간 본래의 성격을 탈취해버리고 거대한 권력 속에 있는 중립자인 우주를 인류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게 선물했다.

이러한 국면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교는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조는 정신적 일체에 대한 인간 자신의 열망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미지와 상상의 조직을 인류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조직을 인류가 상실하므로써 조직적이던 인류는 박탈된 단편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와 같이 세속적인 목표의 사회가 단연 우세하게 되어 경제의 합리적인 조직은 자연에 대한 인류의 힘을 증대시켰고 또 정치적으로는 사회가 물질의 부(富)와 발달을 가져오므로써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되었다.

계몽한 인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이성의 발달이 무한함을 예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성이 너무 지나쳐서 반대되는 대상과 부딪치게 되어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가져왔다.

즉 전쟁, 경제위기, 혼란, 집단에서의 정치적 대변혁 등이다. 더우기 고독과 소외감을 가진 인류의 감정은 관료화된 비개인적인 대중사회에서 강렬하게 되었다. 인류는 그 자신들의 인류사회 내에서 까지도 자신을 한 사람의 국의자로 느끼게 되었고 신과 자연과 또 인류의 물자결핍을 보급해 주는 거대한 사회의 기구에 대해서도 소외된 계 삼자로 되었다.

소외된 궁극적인 최악의 형태는 인간 그 자신으로 부터의 소외다. 특수한 사회의 기능에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간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인류는 이러한 기능에 적응을 해야 했고 자기 존재의 나머지는 가능한 최선의 생활을 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의식과 망각의 표면 아래로 떨어지기 일수지만."

건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류의 능력, 욕망 등등을 반영하므로써 다시 한번 예술의 모태가 되며, 현대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은 위대한 건축사회를 이룩하게 했던 전통적인 사회에서 건축사회를 이룩하게 했던 그 부분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것은 새로운 건축을 비판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개발시켜야 한다. 만일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면 왜 현대는 옛날처럼 만족할 수 없나 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